

힙합 비트에 맞춰 신명나는 굿판

영화 '대무가' 제작보고회

박성용 출연... 다음달 12일 개봉
사회문제 결합 카타르시스 전회



영화 '대무가'

/판씨네마 제공

배우 박성용이 힙합 비트에 맞춰 굿판을 벌이는 무당으로 변신한다.

박성용은 지난 16일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대무가' 제작보고회에서 "굿판 배틀 장면을 3개월 동안 연극하듯 연습하고 사흘 동안 촬영했다"며 "접신하는 줄 알았다. 탈진하니까 진짜 (신이) 들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대무가'는 20대부터 40대까지 각 세대를 대변하는 무당 세 명의 이야기다.

박성용은 한때 이름을 날렸지만 교도소에 다녀온 뒤 신 대신 술에 의지해 사는 무당 마성준을 연기했다. 밤거리 에이스였다가 역술계를 평정한 무당학원 에이스 청담도령은 양현민이, 무당학원 단기속성반을 찾은 취업준비생 무당 신남은 류경수가 맡았다.

연극과 뮤지컬 무대에서 주로 활동해온 서지유가 죽은 아버지 혼을 부르기 위해 굿판을 의뢰하는 정윤희를 연기했다. 무당들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두목 손익수 역으로 정경호가 합류했다.

영화는 우선 무당들이 힙합 비트에 맞춰 랩하듯 굿판을 벌인다는 독특한 설정으로 관심을 끈다. 래퍼 빅살·타이거JK·MC메타가 음악에

참여했다. 이한중 감독은 25분 분량의 굿판 배틀 장면에 공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오리지널 스코어가 53곡입니다. 웬만한 뮤지컬 영화를 뛰어넘죠. 세 명의 힙합 아티스트가 각자 세대를 대표하는 가사를 쓰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곡을 만들었습니다."

영화에서 무속세계는 극심한 취업난 속 블루오션으로, 집집은 스타트업으로 그려진다. 이 감독은 "스포츠라 해서 말할 수 없지만 사회적 문제를 몇 가지 더 결합했다"며 "각자 사연을 가진 20~40대 무당이 서로 엮이고 빌런이 합세해 신명나는 굿판을 벌이면 스타일리시한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초자연적 현상에 관심이 많다는 이 감독은 제작비 3,000만 원으로 찍은 동명의 단편에 마성준과 손익수 캐릭터를 추가해 장편으로 확장했다. 그는 "단편을 장편으로 만든다고 하니 모두가 반대해 도전의식이 생겼다"며 "관객이 자신의 한을 흥으로 날려버릴 카타르시스를 주는 영화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박성용은 "단편을 먼저 접하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곧바로 저에게 도전이 됐다"며 "어머님이 교회 권사라서 싫어하실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영화는 다음 달 12일 개봉 예정이다. /연합뉴스

"빌보드 차트 1위 목표로 최선 다할 것"

NCT 정규 4집 '질주' 발표

"이번에 또 '네오'(Neo·새롭게)하게 돌아왔으니 너무 어색하지 마시고 저희 노래를 많이 사랑해주세요."(태용)

그룹 NCT 127은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정규 4집 '질주' 발매 기념 기자회견에서 "NCT 127은 막을 때는 특이하다 싶다가도 돌아서면 생각나는 마라탕 같은 느낌이 있다"고 음악의 정체성을 소개했다.

타이틀곡 '질주'는 중독성 강한 시그니처 신시사이저 사운드와 멤버들의 파워풀한 보컬이 어우러지는 힙합 댄스곡이다. 주변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자신만의 뚜렷한 주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아냈다.

유타는 "노래, 춤, 구성이 다 마음에 들 정도로 삼박자가 맞아떨어졌다"고 타이틀곡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태용은 "'질주'는 NCT 127 그 자체인 곡"이라며 "멤버들의 악동스러운 모습과 '네오한' 이미지가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퍼포먼스로 보여드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타이틀 곡"이라고 보냈다.

이미 술하게 음악 프로그램 1위를 따냈고, 300만장이 넘는 음반 판매고를 올리는 이들이기에 다음 목표가 궁금하다. 관련 질문이 나오니 NCT 127은 스스로없이 '빌보드(앨범 차트) 1위'라고 답했다.

자니는 "목표를 세운다면 빌보드 1위"라며 "이들 목표로 삼아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다면 기본도 좋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전남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소속 가수들의 프로듀싱에서 손을 떼고자 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가요계와 증권가에서 화제가 됐다.

태용은 이와 관련해 "저희가 SM에 들어온 이래 연습생 때부터 이수만 프로듀서와 함께했기에 그가 없는 SM은 상상이 잘 안 된다"며 "이수만 선생님이 NCT 127의 질주를 사랑해주시고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앨범이 그의 마지막 프로듀싱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룹 NCT 127

/SM엔터테인먼트 제공

'빅마우스' 시청률 13.7%로 종영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고 간 MBC 금드라마 '빅마우스'가 13%대 시청률로 막을 내렸다.

18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밤 9시 50분 방송된 '빅마우스' 마지막 회 시청률은 13.7%로 집계됐다. 자체 최고 기록이다. 전날 방송에서는 박창호(이종석 분)가 오랜 싸움 끝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권력의 중심에 선 최도하(김주하)를 응징하면서 승리를 거뒀다.

구천사장 자리를 놓고 열린 TV토론회에서 박창호의 아내 구미호(임유아)는 NK화해이수심 년간 방사능 폐수를 흘려보내 왔으며, 그 뒤에는 최도하가 있었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자신 역시 피폭돼 시한부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최도하는 법정에서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증세가 악화하던 구미호는 결국 숨을

거뒀다. 독기를 품은 박창호는 최도하가 이용하는 수영장을 방사능 폐수로 채웠고 최도하는 피를 토하며 죽었다.

'빅마우스'는 생계형 변호사가 희대의 사기꾼이자 거대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빅마우스라는 누명을 쓴 뒤 살아남기 위해 교도소에서부터 권력 정점에 오를 때까지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려냈다.

드라마는 전반부 베일에 싸인 빅마우스가 누구인지 추리하는 과정을 '폭풍 전개'로 밀어붙이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또 교도소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세력 다툼 속에서 박창호와 그를 장기간의 말처럼 이용하려 하는 빅마우스의 머리싸움으로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재벌가 권력층이 만든 무법도시 구천시의 평범한 시민이었던 박창호와 구미호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상 밖의 기지를 발휘하며 '계란으로 바위 치기'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나가며 쾌감을 안겼다. /연합뉴스

국민배우 안성기 혈액암 투병

"많이 호전된 상태 회복 집중"

배우 안성기가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아티스트컴퍼니는 소속 배우 안성기가 혈액암으로 1년 넘게 치료받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평소에도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만큼 지금 많이 호전되고 있는 상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회복과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성기는 2020년 10월 병원에 입원하며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으나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지난 15일 서울 CGV압구정에서 열린 '배창호 감독 특별전'에 참석한 그는 배우 김보연의 부축을 받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였다.

무대에서는 다소 어눌한 말투로 "40년 만에 이 영화를 또 본다는 것은 굉장히 가슴을 설레게 한다"며 힘겹게 말을 이어가기도 했다.

/연합뉴스

스릴러 드라마 '블라인드' 첫회 시청률 3.4%

빠른 전개·복선 추리 유도

추리 소설 같은 촘촘한 스릴러 '블라인드'가 3%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10시 40분 방송된 tvN 금드라마 '블라인드' 첫 회 시청률은 3.4%로 집계됐다.

첫 회에서는 살인사건 현장마다 독특한 흔적을 남기는 일명 '조커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에 9명의 배심원이 배정되는 과정이 그려졌다.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혈 형사 류성준(옥택연 분)은 여대생을 무참하게 살해한 '조커 살인사건'을 맡고, 수사 끝에 유력한 용의자 정만춘(전진우)을 법정에서 세운다.

정만춘은 혐의를 부인하며 류성준이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고, 정만춘을 고용한

사장이자 피해자의 아버지 백문강(김법래)은 사실 어린 소년들을 가둬놓고 학대하던 일명 '미친개'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블라인드'는 빠른 전개와 동시에 드라마 곳곳에 단서와 복선을 숨기고 시청자들이 추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마치 추리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평을 받는다.

살인사건과 관련된 복선뿐만 아니라 류성준의 어두운 과거, 어색하고 불편해 보이는 류성준네 가족이 숨긴 진실 등을 암시하며 앞으로의 전개에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배우들의 표정을 클로즈업으로 담아내는 연출도 눈길을 끌었다. 신유휘 감독은 제작발표회에서 "멋있거나 그럴싸하게 살인을 묘사하기보다 배우들의 감정을 담아내려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6:00 통합뉴스룸 7:50 인간극장 8:25 아침대장 9:30 통합뉴스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진품명품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7:00 해 볼만한 아침 1부 8:10 해 볼만한 아침 2부 9:00 KBS 아침 뉴스 타임 9:20 오라차 내 인생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법대로 사랑하라	6:00 뉴스투데이 1부 6:25 뉴스투데이 2부 7:50 생방송 오늘 아침 8:50 비밀의 집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이맛에 산다 11:15 헬로!즈 공학교실 11:45 치치평핑 시즌4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인블랙박스 8:50 좋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살맛나는 오늘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6:10 세계테마기행 7:00 꼬버스타요 7:15 출동!슈퍼맨 7:45 고고디노 우리동네공룡 8:00 당당명 유치원 8:20 로보카폴리 9:05 슈터두퍼 잉글리시 9:20 빅블루 9:35 티와 쿨마 9:40 우리집 유치원(시즌5) 10:10 한국의 돌래길 10:3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12 12:10 다문화 고부열전 1:00 당신의 활력충전소 2:45 바닷가 사람들 3:35 레전드히어로-삼국전 4:05 영어스토리 타임 4:15 패파피크 5:00 EBS 뉴스 6:00 생방송 워터지 해결단
6:00 6시 내고향 7:00 통합뉴스룸 7:40 우리말 겨우기 8:30 오라차 내 인생 9:00 통합뉴스룸 10:00 가요무대 11:30 통합뉴스룸	6:30 2TV 생생정보 7:50 황금기연 8:30 이별도리콜이 되나요? 9:50 법대로 사랑하라 11:00 개는 훌륭하다	6:05 생방송 오늘 저녁 7:05 비밀의 집 7:40 MBC 뉴스데스크 9:00 안싸우면 다행이야 11:30 오온영 리포트 결혼지옥	6:50 생방송 투데이 7:50 SBS 8 뉴스 9:00 생활의 달인 10:00 동상이몽2 나는 내 인생 11:30 공생의 법칙 1 스페셜	7:00 말랑말랑이 빼빼 7:30 한국의 돌래길 7:50 바닷가 사람들 8:40 세계테마기행 9:30 한국기행 9:50 EBS다큐프라임 10:45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11:55 클래식세

오늘의 운세 '소원' 연서연 생생 제공 010-5915-6875 ysy_wish@daum.net 9월 19일 (음력 8월 24일)

<p>48년생 지출은 생기고 고민은 없어진다. 60년생 손해를 보지 한 우물만 파라. 72년생 정답을 얻으려 하다 망신당한다. 84년생 안전하게 가는 길을 택하라.</p>	<p>52년생 아낌없이 베푼다 보면 덕은 쌓인다. 64년생 결과가 의외로 마음에 들지 않다. 76년생 관심과 애정이 넘친다. 88년생 집안이 화목하니 가화만사성이다.</p>	<p>44년생 마음에 문을 열고 다가가라. 56년생 평정심을 가지고 진행하라. 68년생 해답을 얻었으니 기쁘다. 80년생 선을 넘는 행동만 삼가면 주목받는다.</p>
<p>49년생 만족스럽게 호감하는 날이다. 61년생 소중한 경험으로 이끌어간다. 73년생 계획했던 일을 하나씩 일구어 간다. 85년생 축하의 인사를 받는다.</p>	<p>41년생 그동안 고민이 풀렸다. 53년생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을 구분하라. 65년생 마음을 결정하게 된다. 77년생 고집부리지 않아도 내 뜻대로 흘러간다.</p>	<p>45년생 잘못된 판단으로 고민한다. 57년생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69년생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라. 81년생 변화에 대해 수긍하라.</p>
<p>50년생 다름이 있으니 조심하라. 62년생 부부간에 믿음이 깨지기 쉽다. 74년생 여기저기 활동량으로 바쁜 일정이 다. 86년생 직장에 이득수가 있다.</p>	<p>42년생 울적한 마음이 사라진다. 54년생 가족의 의논이 필요하다. 66년생 원하는 선물을 받겠다. 78년생 기쁜 소식을 기다려라.</p>	<p>46년생 급한 마음을 버려라. 58년생 편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지니 감수하라. 70년생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끌어간다. 82년생 사소한 것에 마음 쓰인다.</p>
<p>51년생 모란 것이 없이 동심 동심 긍정적이다. 63년생 서로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한다. 75년생 명예로운 일이 겹친다. 87년생 기대하던 대로 이룬다.</p>	<p>43년생 욕심부려 근심만들지 마라. 55년생 상대방 하는 일에 같이 참여해 보는 것도 좋다. 67년생 새로운 방법이 떠올라 기쁘다. 79년생 능력을 인정받는다.</p>	<p>47년생 스스로 벌인 일에 수습하기 바쁘다. 59년생 계획을 세워 차분히 해결하라. 71년생 자존심을 내세우면 그르친다. 83년생 복쪽으로 가면 길하다.</p>